

1. 국가 개황

- 말레이시아는 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음.
- 북쪽은 타이, 남쪽은 싱가포르, 서쪽은 말라카 해협, 동쪽은 남중국해를 경계로 함.
-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며, 인구는 250만 명.
- 말레이시아는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시아인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다인종 국가.
- 말레이 반도는 세계 주요 항로 중 하나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지리학적으로 아시아 여러 민족들의 집합소로 성장한 배경을 갖고 있음.
- 그 영향으로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인종 분포를 보이며, 그 가운데 말레이시아인이 약 2/3를 차지함.
- 대개가 이슬람교도들이며 언어는 국가 공용어로 오스트로네시아어를 사용함.
- 이 밖에 중국 남동부에서 이주해온 중국인들이 3/10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인도인, 파키스탄인, 드라비다어와 인도유럽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스리랑카 출신의 타밀인들로 구성되어 있음.
- 전적으로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나라로, 원자재 생산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것이 훨씬 다양해지고 있음.
- 1970년 부유한 소수집단(보통 중국인이나 인도인 상인)에 대해 인종폭동이 일어난 후 정부는 말레이인을 비롯한 토착 민족들의 빈곤을 줄이기 위해 새 경제 정책을 고안함.

- 국민총생산(GNP)은 인구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1인당 GNP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높음.
- 여러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지닌 말레이시아는 중국·인도·서양에서 들어온 문화뿐만 아니라 말레이 제도에서 유래된 여러 전통이 한데 융합된 곳임.

2. 방송산업 현황

- 말레이시아 방송은 다민족 문화를 철저히 수용하기 위해 정치적, 외설적인 문제를 엄격하게 규제함.
- 쿠알라룸푸르 소재 Astro와 TV3는 모두 주식 거래 시장에 상장돼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받고 있음.
-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사람들이 공존하는 국가적 특성은 방송사업자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임.
- TV 환경은 최근 들어 새로운 상업 지상파 네트워크가 설립되거나 공영방송이 재 도약기를 맞는 등 나아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두 개의 공영방송과 네 개의 상업방송 채널이 운영 중이며, 가장 큰 상업방송사는 텔레비시엔 말레이시아 BHD(TV3)임. 이 방송사는 전체시장의 총 46%를 차지.
- TV3의 경쟁자는 라디오 텔레비시엔 말레이시아의 RTM-1이다. 자매 채널인 RTM-2가 세 번째 인기 채널이며, 이 두 채널은 38%를 점유하고 있음.
- Channel9는 2003년, 비교적 늦게 시장에 진입했으나, 빠르게 정착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매우 높은 채널이 됨.
- 유료TV 시장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열려 있는데, 이들은 위성과도 경쟁하고 있음. DTH 운영자인 Astro는 유료TV시장에서 독점에 가까움. Telcos와 새로운 진입자들은 대체 네트워크

로 전환했는데, 2005년에는 IP 기술을 바탕으로 한 MiTV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

○ 위성사업자인 Measset은 MEASAT-3 위성을 열었는데, 이는 2005년 말레이시아 DTH 능력을 크게 향상시킴. Measset의 목표는 이 위성을 이용해 전 세계 인구 70%가 시청 가능하도록 채널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북아시아 지역에 DTH를 공급할 것임.

○ 방송 관련 채널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규제 문제 또한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함. 그러나 말레이시아 커뮤니케이션즈와 멀티미디어 위원회는 여전히 콘텐츠 규제가 자체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음.

1) 케이블TV

○ 케이블TV 시장의 경우, 다른 유료TV 사업자들은 실패했지만 Astro는 성공함. 그 원인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라인업과 시장에서 차지하는 Astro의 위상 차이 때문.

○ 1995년에 출발한 Mega TV는 최초의 TV 네트워크였는데 케이블 시장의 선두를 고수하고 있음.

○ 두 번째 규모인 Maxis TV도 Mega TV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의 부호인 아난다라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임. 그러나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2) 광대역TV(Broadband)

○ 2004년 9월 TM은 18개의 채널에서 DSL 기술을 이용한 실험 TV를 제공하고 있음. 이 TV는 컴퓨터나 디지털 셋톱박스가 장착된 텔레비전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송사

와 달리 인터넷과 방송을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임. 월 이용료는 70RM이며 부가 서비스로 30채널이 더 제공됨.

○ TM미디어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광대역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2004년 말까지 20만 명이 가입했음. 프리미엄 채널은 음악, 패션, 영화,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방송 중임.

○ MITV는 TM미디어의 경쟁자로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들은 서비스를 2년 내에 전국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임. 초기에 50채널을 제공했던 그들은 MTV 인도네시아와 MTV인도, VHI 등 음악 채널을 소유하고 있음.

3) 위성TV

○ ASTRO는 말레이시아 유일의 유료TV 운영자로 5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은 1996년 DTH 서비스를 동북아시아까지 확장할 계획임. Maxis 케이블TV는 1996년 방송허가를 받았으며, DTH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음.

○ ASTRO는 중국어 프로그램을 라인업에 다수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TVB를 통해 공급받고 있음. 이 서비스의 가입자 42%가 화교이며, 38%가 말레이시아인, 14%가 인도인으로 집계됨. 중국 화교 가입자들은 RM72의 비용을 내는 말레이시아 사람과 비교할 때 역시나 RM92를 내는 중대한 고객임.

○ 많은 북인도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2004년 겨울에 인도 프로그램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타밀어를 비롯해 인도어, 캐나다, 힌두어, 방갈어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하였음.

4) 지상파TV

○ 2003년의 지상파 분야에서 채널9와 8TV가 런칭했는데, 이

들은 모두 엔터테인먼트 채널들로 젊은 층의 시청자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음.

○ 8TV는 젊은 층과 중국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음. 엔터테인먼트와 시사 문제를 혼합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것이 말레이시아 텔레비전의 특징임.

○ 채널 9는 2003년 9월 클랑 밸리 지역에서 방송을 시작하였음. 그것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15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음. 채널은 프리메라리가, 세리아 A, 럭비 월드컵 등을 주로 중계하며, 타이완이나 홍콩 드라마, 미국 시트콤 <섹스 앤드 시티> 등을 방영함.

3. 규제기관 및 법률

○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이 텔레커뮤니케이션, 방송 및 우편 서비스를 관장하는 유일한 규제기관임. 이 기관은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에 의해서 설립되었음.

○ 말레이시아 방송 시장은 채널과 사업자의 증가로 규제의 필요성 또한 증가함.

○ 말레이시안 통신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는 현재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규제할 방법을 모색 중임. 2004년 9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 및 진술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음.

4. 영상 콘텐츠 유통 현황

○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콘텐츠에 대한 소비 유형도 다소 복잡한 양상임.

- 말레이시아는 15세 이상의 가시청 인구가 870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말레이인이 460만 명, 중국인이 310만 명에 달함.
- 말레이인과 중국인 수용자들은 자국어로 된 프로그램 시청을 선호함. 즉, 말레이인들은 말레이어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중국인들은 광둥어와 만다린어 프로그램을 시청함을 의미.
-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 프로그램의 비율이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비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수입 프로그램의 경우 고급 취향을 지닌 도시 수용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하고 제작 비용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어 꾸준히 외국 프로그램의 수입을 추진 중에 있음.
-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로 어우러져 있는 국가로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발생한 국가임. 따라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국의 문화를 보호, 유지하는 측면에서 외국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임.
- 과도한 폭력이나 섹스 장면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내 프로그램의 말레이시아 진출 시에도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보임.
- 가족애와 순수한 사랑을 주로 담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가 말레이시아의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만 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함.